

노인접촉,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죽음불안이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 민 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대학의 학부생 3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화불안의 하위 차원 중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접촉 질과 노인에 대한 태도였으며 심리적 불안정 차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접촉 질, 노인에 대한 태도, 죽음불안이었다.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차원의 경우, 노인접촉 질, 죽음불안, 성별이 영향을 주었고 상실의 공포 차원에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죽음불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전반적으로 죽음불안이 낮을수록, 접촉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화불안이 낮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화에 따른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접촉 빈도와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의의, 후속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노화불안, 노인접촉 질, 노인에 대한 태도, 죽음불안

[†] 교신저자 :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137-86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66번지
Tel : 584-6851, E-mail : pseudo@kcg.ac.kr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화란 유기체의 쇠퇴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발달적 관점에서의 노화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Sigelman & Shaffer, 2002).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젊음과 관련된 특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반면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특성만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여 노인과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Kang & Cho, 2002).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은 부정적 특질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고, 아프고, 고리타분하고 괴팍한 것으로 묘사된다(Crockett & Hummert, 1987; Lutsky, 1980; McTavish, 1971).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를 건강과 기능의 상실, 외모의 부정적 변화 및 젊은 날의 안녕감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현대인들은 자신의 노화와 노년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을 느낄 뿐 아니라 가능한 한 노화를 피하고 싶어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 현상이 핵가족화 및 도시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노인부양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노화와 노년기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지게 만들고, 이것은 다시 젊은 사회구성원이 노화과정이나 노화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도록 만든다(Lasher & Faulkender, 1993). 실제로 최근의 연구에서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도 노화와 노년기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옥, 2011; 장휘숙, 2012).

노화불안과 노화불안 척도

노화로 인해 미래에 경험하게 될 변화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현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결국 개인의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데,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인생 만족이 더 낮았으며(Klemmack & Roff, 1984), 더 나아가 노화에 대한 걱정이 성인기 동안 여성의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 장애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ler, McGonagle, Swartz, Blazer, & Nelson, 1993; Nolen-Hoeksema, 1990; Rosenfield, 1999).

물론 노화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적당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노화를 거부함으로써 은퇴 후의 노후 삶에 대한 준비를 방해할 수 있다(Lasher & Faulkender, 1993). 중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순옥(2012)의 연구에서 노화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화불안이 노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옥, 2011).

노화불안이 인생전반에 걸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 연구자들은 노화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Lasher와 Faulkender(1993)는 Salter와 Salter (1976), Klemmack, Durand와 Roff(1980), Lester, Monfredo와 Hummel(1979), Kafer, Rakowski, Lachman과 Hickey(1980)의 노화불안 척도를 개관하였는데, Lasher 등(1993)은 이들 도구들이 문항 수가 적고 노화불안의 다차원적 개념을 포함하지 못

할 뿐 아니라 경험적인 도구개발과정을 거치지 않아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전통적으로 노년학 문헌에서 노화불안에 네 가지 차원 혹은 영역이 있음을 제안하는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대인간/영적 차원이다(Pyrek & Snyder, 1977; Lasher et al, 1993 재인용). 또한 노화불안의 네 가지 차원은 불안이 표현되는 세 가지 특별한 방식을 가지는데, 노화에 대한 두려움(fear of aging), 나이든 상태에 대한 두려움(fear of being old), 나이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fear of old people)이다. Lasher 등(1993)은 네 가지 차원과 세 가지 방식의 조합으로 12개의 범주를 구분하고 각 범주 당 7개, 총 84개의 문항을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적절한 도구개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된 노화불안 척도인 AAS(anxiety about aging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노화과정과 관련된 상실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측정하는 다차원적 도구로 네 개의 하위차원을 포함한다. 네 개의 하위차원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정,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의 공포이다(Lasher et al., 1993).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노화불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타인들과의 외부적 접촉을 평정하는 것이며 ‘심리적 불안정’은 노화와 관련된 개인적이고 내적인 문제를 평정하는 것으로 노년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좋게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은 신체적 변화와 외모의 변화와 관련된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고, ‘상실의 공포’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실이나 분리와 연합된 공포를 측정하는 것으로 심리적 불안정보다는 좀 더 외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실감은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윤훈, 이순철, 오주석, 2007), 노화불안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박현숙, 2009; Lasher et al, 1993).

이 척도는 원래 노인이 아닌 노년기 이전의 성인을 대상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노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거부감, 노화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의 개발 이후 노화불안 연구들은 노년기에 도달하기 전인 젊은 성인이나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을 측정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연구자들은 사춘기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이 자신의 노화에 대해 상당히 높고 안정적인 수준의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Doka, 1986; Lasher et al., 1993), 노화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는 개인차가 있다(장희숙, 2012). 즉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불안이 낮은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한다. 무엇이 노화 과정에 대한 불안의 개인차를 가져오는 것일까? 노화불안 연구자들은 노화불안의 개인차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려는 연구를 수행해왔는데, 지금까지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로 연령, 성별,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에 대한 지식, 노인과의 접촉, 죽음불안 등이 있다.

연령과 노화불안

노화불안의 원인을 탐색하는 관련 문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요인은 연령이다. 몇몇 연구에서 노화불안과 연령은 유의미하지만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Kafer et al.,

1980; Lasher et al., 1993), Lynch(2000)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노화불안이 감소하지만 중년기는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들은 나이든 성인들에 비해 젊은 성인들이 자신의 노화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일관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는 젊은 사람들이 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노인들과의 접촉이 적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Abramson & Silverstein, 2006; Cummings, Kropf, & DeWeaver, 2000; Kafer et al., 1980; Lasher et al., 1993; Lynch, 2000; Rossi, 2004).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현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노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개인적 공포를 완화시켜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과의 접촉이 부족한 핵가족 문화의 대학생들의 경우 노화불안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화불안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과정을 이른 시기부터 이해하고 향후 노화과정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심리중재의 개념(김숙남, 2008)임을 생각해볼 때 대학생들이 노화불안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성별과 노화불안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요인은 성별이다. 노화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는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연구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

다. AAS를 개발한 Lasher 등(1993)은 남성의 불안이 여성의 불안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의 몇몇 연구들에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McConatha, Hayta, Rieser-Danner, McConatha, & Polat, 2004; McGuinn & Mosher-Ashley, 2002; Watkins, Coates, & Ferroni, 1998).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자신의 노화에 대해 더 불안을 느낀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Abramson et al., 2006; Cummings et al., 2000; Lynch, 2000). 여성은 나이와 관련된 편견, 고정관념, 차별뿐만 아니라 성에 기초를 둔 불평등에 시달리고, 이와 같은 체계적 불이익은 일생에 걸쳐 지속되므로 노화에 대한 공포는 여성에게 더 심각할 수 있다(Neuevo, Wetherell, Montorio, Ruiz, & Cabrera, 2009). 즉 노화에 동반되는 지위의 상실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노화를 상기하는 것이 여성에게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Barrett & Robbins, 2008). 반면 Lynch(2000)의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남녀의 노화불안이 차이가 없었으며, Yan, Silverstein과 Wilber(2011)의 연구에서도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최근의 역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직장에서 성 불균형이 감소하고 여성들의 직업 참여와 이득이 늘어나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최소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노화불안과 성별의 관계에 대해 비일관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성별과 노화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많은 연구들이 노화불안을 하나의 단일개념으로 취급하였고 이런 이유로 노화불안과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은 노화불안의 차원에 따라 성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Gao, 2012; McConatha et al., 2004; Yun & Lachman, 2006). 따라서 노화불안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노화불안의 하위 차원에 초점을 두고 성별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노인접촉 경험과 노화불안

노인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의 부족이 노화불안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다(Ory, Hoffman, Hawkins, Sanner, & Mockenhaupt, 2003). 집단 간 접촉 가설에서는 적정 조건에서 집단 간의 접촉은 집단 간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Allport, 1954). 이러한 접촉 효과는 인종과 민족 집단을 넘어서서 연령 집단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데(Pettigrew & Tropp, 2008), 연령균형 집단 내에서 노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노화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Kafer et al., 1980). Lasher 등(1993)의 연구에서 노인과 더 많이 접촉한 사람이 노화에 따라 예기되는 자신의 신체적 외모의 변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건강 감퇴, 경제적 안녕감의 변화에 대해 불안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의 베이비부머인 중년세대를 조사한 Yan 등(2011)의 연구에서도 노인과의 접촉 부족이 이들의 노화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의 노인과의 접촉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내에서 노인들과 접촉하는 것 역시 노화 과정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예를 들어, 조부모와의 접촉은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기여하여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줄여준다(McGuinn et al., 2002). 강한 가족주의적 문화 집단(Himes, Hogan, & Eggebeen, 1996)과 공동주거 집단(Angel, Angel, & Himes, 1992; Himes et al., 1996)에서는 세대 간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노화불안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노인과의 접촉 경험에서는 접촉의 정도 즉 접촉 빈도뿐만 아니라 접촉의 질도 중요한데, Lasher 등(1993)의 연구에서 노인과의 접촉의 질이 나쁜 것은 심리적 염려와 관련되어 높은 불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행된 Allan 등(2009)의 연구에서는 접촉의 유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들과 같이 살았던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을 보인 반면 가정이 아닌 직장이나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노인들과 상호작용을 한 참가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노화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노인과의 접촉 경험을 빈도와 질로 구분하여 노화불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노인접촉 경험의 빈도와 질이 각각 노화불안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화불안

노화불안의 개인차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화에 대한 태도와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개념이다(Lasher et al., 1993). 즉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Ferraro,

1992),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태도는 자기 자신의 노년기와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노인이 된 사람들의 자기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arris & Dollinger, 2003; McConatha, Schnell, Volkwein, Riley & Leach, 2003). Harris 등(200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화불안이 높은 대학생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노인이 되었을 때의 자신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노인차별 그리고 이로 인한 세대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노화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노화 과정에 대한 실제적 지식의 부족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 수 있다(Doka, 1986). 노년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노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린다. 노화에 대한 지각과 노화의 실제 사이의 괴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상을 가지게 만들고 이는 노화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Lasher 등(1993)의 연구에서 노화불안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지식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노화 과정과 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노화불안과 역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Allan & Johnson, 2009; Cummings et al., 2000; Harris et al., 2001; Lynch, 2000), 이것은 노화의 실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미래 노화에 대한 걱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를 지지하지 않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Kline, Scialfa, Stier와 Babbitt(1990)의 연구에서 노화에 대한 지식은 미래 노화에 대한 불안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노화에 대한 지식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년 관련 과목의 수강 여부와 노화불안이 관련이 없었으며, 노화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참가자들의 노화불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et al., 2001). 최근 수행된 Boswell(2012)의 연구에서도 노화불안과 노화에 대한 지식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비일관적인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화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므로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죽음불안과 노화불안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Greenberg, Solomon, & Pyszynski, 1997), 죽음불안은 모든 불안의 원인이 된다(Hall, 1915; Pettitigrew & Dawwon, 1979, 재인용).

노화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표상하는 것이므로(장휘숙, 2012), 노화불안은 죽음불안과 관련성을 가진다(Benton, Christopher, & Walter, 2007). 하지만 노화불안은 죽음에 대한 염려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두는 죽음 불안

과는 구분된다(Lasher et al., 1993; Lynch, 2000). 죽음불안은 개인이 노화에 대해 걱정하는 것의 전부를 표상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죽음뿐 아니라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신체적 건강의 악화, 인지적 효능감의 감퇴 등에 대해 걱정한다(Lynch, 2000). 또한 죽음불안과는 다르게 노화불안은 부정적인 오해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는 걱정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Kruger, 1994; Ross & Drentea, 1998). Martens, Goldenberg와 Greenberg(2005)에 따르면 노화는 신체의 감퇴에 대한 신호이고, 그러한 감퇴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처럼 자신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더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노화 혹은 노인에게 대해 더 높은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Greenberg, Schimel, & Mertens, 2002).

경험하는 강도나 표현되는 정도는 다르지만 인간은 모두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에도(Feifel & Branscomb, 1973) 불구하고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죽음불안이 모든 불안의 원천이 된다는 Hall(1915)의 주장을 상기해볼 때 죽음불안과 노화불안의 관련성을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연구 목적

노화불안은 노년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급속하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주제이다(Lynch, 2000). 또한 노화불안은 노화과정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안녕감, 삶의 만족과 같

은 심리적 적응과도 관련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Lasher et al., 1993; Watkins et al., 1998). 하지만 최근까지도 노화불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노화불안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노화불안의 다양한 원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들 연구들은 성별, 인종, 나이, 노인과의 접촉, 노화에 대한 지식 등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나, 이들 요인들을 함께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이중 한두 개의 지표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Cummings et al., 2000; Kafer et al., 1980; Lasher et al., 1993). 그 결과,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노화불안의 하위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노화불안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다차원적 노화불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노화불안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대상 연령층에 따라 노화불안의 정도나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노년기를 앞둔 중년기 집단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노화불안은 노화과정과 관련되어 예측할 수 있는 염려와 걱정을 나타내는 불안상태로서 현재보다는 미래중심적인 개념임으로(Tallis, Eysenk, & Mathews, 1991), 대학생과 같은 젊은 연령층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Lasher et al., 1993).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은 젊은이들이 노화를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고, 젊은 이들이 노인을 바라보는 방식은 세대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Harris, Moniz, Sowards, & Krane, 1994). 고정관념에 관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노인들에 대해 심각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Hummert 1990), 젊은이들이 가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하고(Ferraro, 1992), 노인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 즉 노화 불안은 노인차별의 원인일 수 있다(Crowley,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차별과 세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대학생들의 노화에 대한 불안을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노화에 대한 불안은 젊은 세대의 인생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의 결과는 이후 노화의 질에 영향을 준다(Lynch, 2000).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인생주기에서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으로 이 시기의 노화 불안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노화불안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밝혀낸다면 젊은 성인기에서부터 노화과정에 대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차원적 노화불안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성별, 노인과의 접촉 빈도와 질,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에 대한 지식, 죽음불안 등이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노화불안의 차

원 각각에 미치는 이들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45명이다. 서울 지역 1개 대학과 경기 지역 2개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 및 심리학 전공 2개 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¹⁾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연구 설명문을 읽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수업 시간 후나 가정에서 설문을 작성하여 이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수거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설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의 자료 3부와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또한 참가자 연령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30세 이상인 5명의 설문지를 추가로 제외하여 총 336명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여성은 196명, 남성은 140명이었고, 참가자의 나이는 18-28세로 평균연령은 21.03세 표준편차는 2.02세이었다.

1) 참가자들의 학번 혹은 학년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나 심리학개론 과목의 경우 과목 특성상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고, 전공과목의 경우 2-4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측정도구

노화불안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AAS(The anxiety about aging Scale)를 김옥(201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옥(2011)의 연구에서는 19개의 문항으로 타당화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희숙(2012)의 연구와 동일하게 2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AAS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것으로 네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하위척도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는 노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편안함과 만족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문항 예, 나는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두 번째 차원은 '심리적 불안정'으로 일반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심리적 과제 혹은 변화를 평가한다(문항 예, 나는 늙은 후에도 삶이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차원은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으로 나이와 관련된 신체적 외모의 변화에 대한 불안을 측정한다(문항 예, 나는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일이 괴로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원은 '상실의 공포'로 노년기에 우정, 건강, 능력,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 인생의 의미 등을 상실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평가한다(문항 예, 내가 아주 늙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각 문항에 대해 1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자주 그렇다) 사이에서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차원의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88, 심리적 불안정은 .74,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은 .75, 상실의 공포는 .69였으며 전체 노화불안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노인 접촉 빈도와 질

노인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측정하기 위해 Hutchison, Fox, Laas, Matharu와 Urzi(2010)의 노인접촉 척도를 김지연, 김민희와 민경환(201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3문항은 노인과의 접촉빈도와 관련된 내용이고(문항 예, 내가 자랐던 동네에는 노인들이 많았다), 3문항은 노인과의 접촉의 질과 관련된 내용(문항 예, 과거에 노인들과 함께 했던 기억은 나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을 자주 그리고 긍정적인 접촉을 더 많이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접촉 빈도의 Cronbach's α 는 .78이었고 노인접촉 질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1984)이 개발한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한정란(2003)이 한국어판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문항 예, 현명하다-어리석다, 친절하다-불친절하다). 각 형용사 쌍에 대해 1점에서 7점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총점의 범위는 최소 20점에서 최대 140점으로 20점은 노인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반

영하고 140점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노화에 대한 지식

Palmore(1988)의 Facts on Aging quiz I(FAQ I)과 Facts on Aging quiz II(FAQ II)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한정란(2000)이 타당화한 한국판 노화에 대한 지식 척도 25문항을 사용하였다(문항 예, 노인이 되면 우울경향이 증가한다). 각 문항에 대해 맞다(O), 틀리다(X), 잘 모르겠다(?)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O, X 중 맞는 답을 한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틀린 대답을 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은 모두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죽음불안

Wong, Recker와 Gesser(1994)가 개발한 죽음태도척도개정판(Death Attitude Profile Revised)을 김지현과 민경환(2010)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회피를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문항 예, 죽음은 분명 무서운 경험일 것이다, 나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생각을 피한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서 평정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다.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측정 변인들의 평균을 보면 전체 노화불안은 2.92였으며 노화불안 하위차원을 보면,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3.32, 심리적 불안정이 2.52,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이 2.96, 상실의 공포가 2.86으로, 노인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심리적 불안정이 가장 낮았다. 7점 척도로 평정한 노인과의 접촉빈도와 접촉의 질은 각각 3.87과 3.65로 조금 낮은 편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 태도는 81.27로 중립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죽음불안의 평균은 3.30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고, 노화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3.43이었다.

노화불안과 노인과의 접촉빈도, 접촉의 질, 노인에 대한 부정 태도, 죽음불안, 노화에 대한 지식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화불안 점수는 노인접촉 빈도($r=-.251, p<.001$), 노인접촉 질($r=-.437, p<.001$)과는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노인에 대한 부정 태도($r=.376, p<.001$), 죽음불안($r=.337,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노화불안의 하위차원들 간 상관은 .134~.546로 나타났다. 노화불안 하위차원 중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 접촉 빈도($r=-.494, p<.001$), 접촉 질($r=-.738, p<.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노인에 대한 부정 태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439, p<.001$)을 보였다. 심리적 불안정 차원은 접촉 질($r=-.186, p<.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노인에 대한 부정 태도($r=.264, p<.001$), 죽음불안($r=.258,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세 번째 차원인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은 접촉의 질($r=-.210, p<.001$)과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노인에 대한 부정 태도($r=.179, p<.001$), 죽음불안($r=.348,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결 과

표 1. 노화불안과 관련 변인들 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

	1	2	3	4	5	6	7	8	9	10
1	1	.604***	.786***	.806***	.727***	-.251***	-.437***	.376***	-.067	.337***
2		1	.286***	.292***	.134*	-.494***	-.738***	.439***	-.057	.081
3			1	.546***	.522***	-.088	-.186**	.264***	-.027	.258***
4				1	.498***	-.092	-.210***	.179**	-.064	.348***
5					1	-.032	-.102	.207***	-.043	.301***
6						1	.640***	-.216***	.045	.041
7							1	-.391***	.033	.015
8								1	-.045	.132*
9									1	-.061
10										1
M	2.92	3.32	2.52	2.96	2.86	3.87	3.65	81.27	13.43	3.30
SD	.51	.75	.63	.75	.69	1.55	1.39	12.55	2.37	1.18
α	.86	.88	.74	.75	.69	.78	.87	.86	-	.90

$p < .05$, ** $p < .01$, *** $p < .001$

주. 1: 노화불안 전체, 2: 노인에 대한 두려움, 3: 심리적 불안정, 4: 신체/외모걱정, 5: 상실의 공포, 6: 노인 접촉 빈도, 7: 노인 접촉의 질, 8: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 9: 노화에 대한 지식, 10: 죽음불안

M: 평균(8번과 9번은 총점), SD: 표준편차, α : 내적합치도(cronbach's α)

상실의 공포는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r=.207$, $p<.001$), 죽음불안($r=.30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의 어떤 하위차원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다음으로 노화불안의 각 하위차원들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화불안의 각 하위차원과 전체 노화불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회귀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예언변인으로 더미코딩을 거친 성별(0=여성, 1=남성), 노인과의 접촉 빈도, 접촉의질,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 죽음불안을 투입하였다.

우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를 확인하였다. 공차한계의 범위는 .519~.997, VIF의 범위는 1.003~1.926으로 공차한계는 0.1이상, VIF는 10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노화불안의 각 하위차원에 대한 중다회귀분

표 2. 노화불안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노인에 대한 두려움	성별	-.045	-.030	-.825
	노인접촉빈도	-.023	-.048	-1.016
	노인접촉 질	-.348	-.643	-12.961***
	노인에 대한 부적태도	.010	.167	4.234***
	죽음불안	.046	.072	1.984
$F= 90.552^{***}$		$R^2 = .579$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심리적 불안정	성별	.038	.030	.574
	노인접촉빈도	.014	.035	.524
	노인접촉 질	-.064	-.141	-1.986*
	노인에 대한 부적태도	.009	.186	3.293***
	죽음불안	.125	.233	4.483***
$F= 10.140^{***}$		$R^2 = .134$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성별	-.231	-.152	-3.078**
	노인접촉빈도	.027	.056	.873
	노인접촉 질	-.124	-.230	-3.360***
	노인에 대한 부적태도	.003	.051	.941
	죽음불안	.222	.350	6.992***
$F= 16.219^{***}$		$R^2 = .198$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상실의 공포	성별	-.025	-.018	-.339
	노인접촉빈도	.012	.030	.412
	노인접촉 질	-.032	-.063	-.883
	노인에 대한 부적태도	.008	.151	2.654**
	죽음불안	.166	.282	5.379***
$F= 9.116^{***}$		$R^2 = .122$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노화불안	성별	-.066	-.063	-1.409
	노인접촉빈도	.008	.023	.401
	노인접촉 질	-.142	-.383	-6.179***
	노인에 대한 부적태도	.008	.188	3.818***
	죽음불안	.140	.320	7.067***
$F= 34.555^{***}$		$R^2 = .344$		

주. β = 표준화된(standardized) 베타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석 결과 노화불안의 하위차원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의 경우, 회귀모형은 $F=90.552(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언변인들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량의 57.9%를 설명하였는데, 노인접촉의 질($\beta=-.643, p<.001$)과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beta=.167, p<.001$)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불안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F=10.140(p<.001)$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언변인들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량의 13.4%를 설명하였다. 심리적 불안정 차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가지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죽음불안($\beta=.233, p<.001$),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beta=.186, p<.001$), 노인접촉의 질($\beta=.141,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차원인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인 경우, 회귀모형은 $F=16.219(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언변인들은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불안 변량의 19.8%를 설명하였다. 성별($\beta=-.152, p<.01$)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접촉의 질($\beta=-.230, p<.001$)과 죽음불안($\beta=.350, p<.001$)이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차원인 상실의 공포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F=9.116(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언변인들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량의 12.2%를 설명하였다. 상실의 공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beta=.151, p<.001$)와 죽음불안($\beta=.282, p<.00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화불안의 전체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F=34.555(p<.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예언변인들은 전체 노화불안 변량의 34.4%를 설명하였다.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접촉의 질($\beta=-.383, p<.001$), 죽음불안($\beta=.320, p<.001$),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beta=.188, p<.001$)였다.

노화불안의 하위차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죽음불안이 높을수록 심리적 불안정,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의 공포가 높았으나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의 경우는 죽음불안의 영향력이 없었다. 또한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 접촉의 빈도는 노화불안의 어떤 하위요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노화불안 정도를 확인하고 성별, 노인접촉의 빈도와 질,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에 대한 지식, 죽음불안이 노화불안의 각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화불안의 각 차원별 평균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3.32, 심리적 불안정이 2.52,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이 2.96, 상실의 공포가 2.86으로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불안정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휘숙(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화불안 점수(3.38, 2.52, 2.67, 2.74)와 유사한 것으로 대학생들의 경우, 노화불안의 하위 차원 중 노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며 심리적 불안정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노화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노인접촉 경험(접촉 빈도와 접촉 질)과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 죽음불안, 노화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여 노화불안 하위차원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접촉 경험의 빈도와 질, 노인에 대한 부적 태도, 죽음불안은 노화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의 하위차원뿐 아니라 다른 어떤 변인들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접촉 경험 중 노인접촉 빈도는 노인접촉의 질과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접촉의 빈도가 높을수록 접촉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접촉 빈도가 높고 접촉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노인접촉 빈도와 노인접촉의 질로 측정된 노인접촉 경험은 죽음불안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노화불안의 각 하위차원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하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유사하였으나 차원에 따라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요인들의 영향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별은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노화불안에 대한 성별의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들의 대부분이 노화불안의 하위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노화불안의 전체점수를 비교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는 성별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노화불안의 차이가 없다는 Yan 등(2011)의 최근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하지만 성별이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들의 경우 신체/외모와 관련된 걱정이 남성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주장들(Gao, 2012; Kafer et al., 1980; McConatha et al., 2003; Yun et al., 2006)을 지지한다. 여성들의 경우 신체적 매력이나 젊어 보이는 외모는 자기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McConatha et al., 2003). 한국, 중국, 일본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완석과 유연재(2012)의 연구에서도 국가에 관계없이 여자 대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외모를 아름다움과 가치의 기준으로 보는 사회적 차별은 젊은 여성들조차도 매력에 대한 걱정을 하도록 만들었고(Hurd, 2001), 특히 노화에 대한 이중 잣대(Sontag, 1972)로 인해 여성들의 경우 외모의 매력 상실은 노화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Barret 등(2008)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여성의 매력 상실의 공포는 여성들의 심리적 고통과 관계가 있었다.

둘째, 노인들과의 잦은 접촉이 젊은 사람들의 노화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예, Caspi, 1984; Kafer et al., 1980; Lasher et al., 1993; McGuinn et al., 2002; Yan et al., 2011)과는 달리 노인과의 접촉 빈도는 노화불안의 어떤 하위차원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촉의 질은 상실의 공포를 제외한 나머지 차원 모두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는데 이는 접촉의 빈도보다는 접촉의 유형이 더 중요하다는 Allan 등(2009)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노인과의 접촉 유형은 접촉이 자발적인지 아닌지, 협력적 관계인지, 우정 형성의 가능성이 있는지, 고정관념에 전형적인 노인과의 접촉인지 혹은

비전형적인 노인과의 접촉인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관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접촉 유형 혹은 접촉 특성은 접촉의 질을 결정한다(Wittig & Grant-Thopson,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인 노인과 접촉하는 것은 직업 장면에서 노인과 접촉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가정 내 노인과의 접촉은 대부분 비자발적이고 동등하지 않으며 우정 관계가 아닌 젊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일방적 부양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잦은 접촉이 오히려 더 큰 심리적 걱정을 일으키고 더 높은 노화불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Lasher et al., 1993). 최근 연구에서 노인 친족들과 함께 살았던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과 노인 차별적 태도를 보였지만, 직장이나 다른 사회적 장면에서 노인들과 상호작용을 한 참가자들은 노화불안을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an et al., 2009).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노인과 작업을 한 학생들은 유능한 노인들과의 접촉 경험이 좋았던 반면 노인과 함께 살았던 학생들은 아마도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접촉의 유형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자들이 접촉한 노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노인접촉의 질이 달라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가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인의 노화불안을 증가시킨다는 Lynch(2000)의 주장과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인 노인차별이 관련성을 가진다는 실험진(201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넷째, 죽음불안은 노화불안의 하위차원 중 심리적 불안정,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 상실의 공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신체/외모에 대한 걱정이 가시적 죽음불안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상실의 공포가 가시적 죽음불안, 실존적 죽음불안과 관련된다는 Benton 등(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노화불안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인 위기관리이론(TMT, Terror Management Theory)에 따르면, 젊은 사람에게 있어 노인들은 자신의 미래 운명 즉, 아름다움, 건강, 감각의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신호이므로 위협적으로 여겨지고 노화불안을 유발한다(Greenberg et al., 2002).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필연성에 대해 실감하게 되는데(Gao, 2012), 신체적 외모의 매력이 사라지는 것과 신체적 능력의 감퇴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의 신호일 수 있다(Marten et al., 2005).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서 사망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상실은 특히 죽음불안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Benton, et al., 2007).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노화불안의 차원별로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에는 죽음불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Klavar, 2001; Rupp, Vondanovich, & Crede, 2005)는 주장으로 미루어볼 때 노화불안의 나머지 차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두려움 차원에서 예언변인들의 설명량은 57.9%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불안 차원과는 달리 자신이 아닌 노인이라는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구체적 공포를 의미

하는 것으로 노인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특성과 질을 사정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박현숙, 2009).

다섯째,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노화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던 노화에 대한 지식이 노화불안의 하위차원들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태도나 노인 접촉 경험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노화불안과 노화지식 간의 상관이 없다는 Kline 등(1990)과 Boswell (2012)의 연구나 노화에 대한 지식 증가가 노화불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Harris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숙(2009)의 연구에서 노인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노화불안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노화에 관한 지식 습득이 노화불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의 간접적 증거이다. 한편 Lynch(2000)의 연구에서 노화에 대한 지식은 젊은이들의 노화불안과는 관계가 없었고 나이든 사람들의 노화불안과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Lynch(2000)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후 연구에서는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화불안의 관계가 정말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화에 대한 지식의 특징 유형이 노화불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Allan 등(2009)의 제안과 Palmore의 FAQ가 노화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적 정보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Klemmack(1978)의 비판을 고려해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도구로 노화지식을 측정하거나 노화에 대한 지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노화불안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표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노화불안을 측정하는 도구인 AAS는 대학생을 포함하는 노년기 이전의 성인들의 노화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건강, 신체적 기능, 외모에서 나이와 관련된 변화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의 수준에 영향을 주며(Lynch, 2000)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는 대부분 중년기 이후이다. 또한 중년기에는 은퇴와 경제적 지위 손상에 대한 걱정(Ross et al., 1998), 자녀 독립으로 인해 노년기가 더 외롭고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Hiedemann, Suhomlinova, & O'Rand, 1998) 등으로 노화불안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Lynch,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중년기위기 이론에서는 노화불안이 중년기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Kruger, 1994). 또한 노화불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Yan, 2011), 건강(Hurd, 2001; Klemmack & Roff, 1984; Lynch, 2000), 교육수준(Yan, 2011)이 노화불안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대학생 집단이었으므로 이러한 변인을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중년기까지 확대하여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학적 특성 요인들 즉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유무,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노화 불안에 기여하는 추가적인 요인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접촉의 빈도와 접촉의 질을 노인접촉 경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주관적인 자기보고는 노화불안의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접촉경험의 객관적 지표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조부모를 포함한 친족

노인과의 접촉 빈도, 친족 이외의 노인들과의 활동 경험 빈도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인과의 접촉의 질이 접촉의 빈도보다 노화불안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과의 접촉경험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노인 접촉의 특성을 밝히고, 젊은 사람과 노인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접촉의 질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Witting et al., 1998).

셋째,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태도, 죽음불안, 노인접촉의 경험 등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지만, 노화불안은 개인의 노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변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에 대한 행동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므로(Lasher et al., 1993), 이 후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이 노인에 대한 행동 차원인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 노화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전 연구들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되었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조사하여 변인들이 노화불안의 각 하위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노화불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화에 대한 지식이 노화불안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학 과목의 교과과정 개발에 중요한 아이디어

어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년학 교육에서 실시되어온 노화에 대한 단순한 지식 교육은 개인의 노화에 대한 불안을 수정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고 세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미래에 닥칠 노화에 대한 불안을 결정하는 원인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Allan et al., 2009). 더 나아가 노화불안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그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분야들 예를 들어 상담가,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훈련시키는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Boswell, 2012).

참고문헌

- 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희 (2008). 노화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292-301.
- 김완석, 유연재 (2012). 한국대학생이 신체 이미징: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301-327.
- 김 옥 (2011).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1), 27-56.
- 박현숙 (2009). 여고생의 노화지식 및 노화불안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 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89-106.
- 김지현, 민경환 (2010).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27.
- 신순옥 (2012). 중년기 노화불안요인 탐색 및 노화불안과 노후준비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학진 (2012). 한국중년기 노화불안요인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5(1), 33-63.
- 윤 훈, 이순철, 오주석, (2007). 고령자의 상실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1-15.
- 장휘숙 (2012). 대학생과 노인의 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18.
- 한정란 (2000).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13(1), 191-206.
- 한정란 (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4), 181-194.
- Abramson, A., & Silverstein, M. (2006). *Images of Aging in America 2004: A Summary of Selected Findings*. http://assets.aarp.org/rgcenter/general/images_aging_1.pdf.
- Allan, L. J., & Johnson, J. A. (2009).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e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1), 1-14.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Angel, R. J., Angel, J. L., & Himes, C. L. (1992). Minority Group Status, Health Transitions, and Community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Elderly. *Research on Aging December*, 14(4), 496-521.
- Barrett, A. E., & Robbins, C. (2008). The Multiple Sources of Women's Aging Anxiet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0(1), 32-65.
- Benton, J. P., Christopher, A. N., & Walter, M. I. (2007). Death anxiety as a function of aging anxiety, *Death Studies*, 31(4), 337-350.
- Boswell, S. S. (2012). "Old People are Cranky": Helping Professional Trainees Knowledge, Attitudes, Aging Anxiety, and Interest in Working with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38(7), 465-472.
- Caspi, A.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t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74-80.
- Crockett, W. H., & Hummert, M. L. (1987). Perceptions of aging and the elderly. In K. W. Schaie (Ed.),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7, pp.217-241).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Crowley, E. M. (2005). *Aging anxiety and ageism as predictors of aging content in social work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Cummings, S. M., Kropf, N. P., & DeWeaver, K. L. (2000).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Aging Among Non-elders. *Journal of Women & Aging* 12(1-2), 77-91.
- Doka, K. J. (1986). Adolescent Attitudes and Beliefs Toward Aging and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2(3), 173-186.
- Ferraro, K. F. (1992). Self and older people referents in evaluating life problems. *Journal of*

- Gerontology*, 47(3), 105-114.
- Feifel, H., & Branscomb, A. B. (1973). Who's afraid of dea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1(3), 282-288.
- Gao, Y. J. (2012).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in Taiwan: An application of a multidimensional item response model.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0(4), 557-566.
- Greenberg, J., Schimel, J., & Martens, A. (2002). Ageism: Denying the face of the future. In T. 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27-48). Cambridge, MA: MIT Press.
- Harris, L. A. & Dollinger, S. C. (2001). Participation in a course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nxiety about aging in oneself and others. *Educational Gerontology*, 27(8), 657-667.
- Harris, L. A., & Dollinger, S. C.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2), 187-194.
- Harris, M. J., Moniz, A. J., Sowards, B. A., & Krane, K. (1994). Mediation of Interpersonal Expectancy Effects: Expectancies About the Elderl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1), 36-48.
- Hiedemann, B., Suhomlinova, O., & O'Rand, A. M. (1998).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Status, and Empty Nest in Midlife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1), 219-31.
- Himes, C. L., Hogan, D. P., & Eggebeen, D. J. (1996). Living Arrangements of Minority Eld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1B(1), S42-8.
- Hurd, L. C. (2001). Older women's bodies and the self: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later lif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38(4), 441-464.
- Hutchinson, P., Fox, E., Laas, A. M., Matharu, J., & Urzi, S. (2010). Anxiety, outcome expectancies, and young people's willingness to engage in contact with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36(10-11), 1008-1021.
- Kang, S. K., & Cho, H. J. (2002). College students' knowledge on aging. *Korean Journal of East-West Mind Science*, 5(1), 41-51.
- Kafer, R. A., Rakowski, W., Lachman, M., & Hickey, T. (1980). Aging Opinion Survey: A Report on Instrument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1(4), 319-333.
- Kessler, R. C., McGonagle, K. A., Swartz, M., Blazer, D. G., & Nelson, C. B. (1993). Sex and depression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I: Lifetime prevalence, chronicity and recurr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 (2-3), 85-96.
- Klemmack, D. L. (1978). An Examination of Palmore's FAQ. *The Gerontologist* 18(4), 403-406.
- Klemmack, D. L., Durand, R. M., & Roff, L. L. (1980).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fear of aging. *Psychological Report*, 46(3), 1320.
- Klemmack, D. L., & Roff, L. L. (1984). Fear of personal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9(6), 756-758.
- Kline, D. W., Scialfia, C. T., Stier, D., & Babbitt,

- T. J. (1990). Effects of bias and educational experience on two knowledge of aging questionnaires. *Educational Gerontology, 16*(3), 297-10.
- Kruger, A. (1994). The Midlife transition: Crisis or Chimera. *Psychological Reports, 75*(3), 1299-1305.
- Lasher, K. P., & Faulkender, P. J.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Lester, D., Monfredo, L., & Hummel, H. (1979). Attitude toward life and aging: An exploratory comparison of elderly and young adults. *Psychological Reports, 45*(2), 562-562.
- Lutsky, N. S. (1980). Attitudes toward old age and elderly persons. In C. Eisdorfer (Ed.),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1, pp.287-336).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Lynch, S. M.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 Martens, A., Goldenberg, J., & Greenberg, J. (2005).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23-239.
- McConatha, J. T., Hayta, V., Rieser-Danner, L., McConatha, D., & Polat, T. S. (2004). Turkish and U.S. attitudes toward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30*(3), 169-183.
- McConatha, J. T., Schnell, F., Volkwein, K., Riley, L., & Leach, E. (2003). Attitudes toward ag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adul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7*(3), 203-215.
- McGuinn, K. K., & Mosher-Ashley, P. M. (2002). Children's Fears About Personal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8*(7), 561-75.
- McTavish, D. G. (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2), 90-101.
- Neuevo, R., Wetherell, J. L., Montorio, I., Ruiz, M. A., & Cabrera, I. (2009). Knowledge about aging and worry in older adults: Testing the mediating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ging & Mental Health, 13*(1), 135-141.
- Nolen-Hoeksema, S. (1990).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Ory, M., Hoffman, M., Hawkins, M., Sanner, B., & Mockenhaupt, R. (2003). Challenging Aging Stereotypes: Strategies for Creating a More Active Socie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5*(3), 164-671.
- Palmore, E. B. (1988). *Facts on Aging Quiz*. New York: Springer.
- Pettigrew, T. F., & Dawson, J. G. (1979). Death anxiety: "State" or "trai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1), 154-158.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8). How does intergroup contact reduce prejudice? Meta-analytic tests of three mediato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6), 922-934.
- Rosenfield, S. (1999). Gender and mental health: Do women have more psychopathology, men less, or both the same (and why)? In A.

- Horwitz & T. Scheid (Ed.), *A handbook for the study of mental health: Social contexts, theories, and systems* (pp.348-3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s, C. E., & Drentea, P. (1998). Consequences of retirement activities for distress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4), 317-334.
- Rossi, A. (2004). The menopausal transition and aging process. In O. Brim, C. Ryff, & R. Kessler (Ed.), *How healthy are we? A national study of well-being at midlife* (pp.153-20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lter, C. A., & Salter, C. (1976). Attitudes toward aging and behaviors toward the elderly among young people as a function of death anxiety. *Gerontologist*, 16(3), 232-236.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igelman, C. K. & Shaffer, D. R. (2002). *Life-span human development*. Wadsworth.
- Sontag, S. (1972). The double standard of aging. *Saturday Review*, 55(1), 29-38.
- Tallis, F., Eysenk, M., & Mathews, A. (1991). The role of temporal perspective and ego-relevance in the activation of worry struc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9), 909-915.
- Wong, P. T., Recker, G. T., & Gesser, G.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pp.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Waskel, S. A. (1995). Temperament Types: Midlife Death Concerns, Demographics, and Intensity of Crisi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9(2), 221-233.
- Watkins, R. E., Coates, R., & Ferroni, P. (1998).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in an elderly Australi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4), 319-332.
- Wittig, M. A., & Grant-Thompson, S. (1998). The utility of Allports' conditions of intergroup contact for predicting perceptions of improved racial attitudes and beliefs.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795-812.
- Yan, T., Silverstein, M., & Wilber, K. (2011). Does Race/Ethnicity Affect Aging Anxiety in American Baby Boomers?, *Research on Aging*, 33(4), 361-378.
- Yun, R. J., & Lachman, M. E. (2006). Perceptions of Aging in Two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Views on Old Age.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1(1-2), 55-70.

논문 투고일 : 2013. 05. 26

1 차 심사일 : 2013. 06. 18

게재 확정일 : 2013. 08. 29

The Influence of Elderly Contact, Attitudes Toward Elderly and Death Anxiety on Aging Anxiety of College Students

Min 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aging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336 college students from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gression analyses confirmed that variables influencing 4 dimensions of aging anxiety are different. Quality of contact and attitude toward elderly predicted 'Fear of Old People' dimension. As for 'Psychological Concerns', death anxiety, attitude toward elderly and Quality of contact were influencing factors. Death anxiety, Quality of contact and sex was significant factors predicting. 'Physical/Appearance anxiety'. As for Fear of Losses, Death anxiety and attitude toward elderly affect. On the whole college students' aging anxiety tended to increase as having lower death anxiety, positive quality of contact, positive attitude towards elderly. And female has higher Physical/ Appearance anxiety than male. whereas results have not found a correlation between either knowledge of aging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aging anxiety. Discussion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finding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Key words : aging anxiety, quality of elderly contact, attitude toward elderly, death anxiety